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11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11
2020 년 10 월 11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12746519](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12746519)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0 월 11 일

차례

1. [양심의국유화는그만두라]	3
2. [유전미필무전땅개]	3
3. [자신의신체는자신의것이다]	4
4. [해산하라]	5

1. [양심의국유화는그만두라]

한국에서양심적병역거부인정및대체복무제가시행됨에따라 A 씨는 2018년 8월입영을거부했다. A 씨는 2006년치레를받은여호와의증인신자이다. 하지만법원은 A 씨의전과, 총기게임향유등이이유로그가신실한' 믿음' 을지니지않았다고판단, 그의양심적병역거부가허위라는판단을내렸다.

도대체법원이어떻게개인의주관적인영역인양심에대해판단할수있다는말인가. 마음속생각의변화마저도우리는법원에승인을받아야하는것인가. 설령 A 씨가법원이나기사의주장처럼' 군대가너무가기싫었' 던것이라고하여도그것역시 A 씨의양심에속하는영역이다.

법원이국민개개인의양심을판단하는조요경같은것을지니고있다면우리는또한사회주의자로서이렇게묻지않을수없다. " 부르주아체제를지키기위해부르주아군대의복무를거부한다" 는선언은법원이보기에양심적인가아닌가.

대체복무이든혹은모병제이든이러한개개인의양심을국가의의미대로재단하려는시도는끊임이없을것이다. 징병제를넘어강제적이고폭력적인' 군대' 라는체제를끝내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 병역' 이라는괴물과맞서려는노력이무엇보다절실할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2. [유전미필무전망개]

2020년 10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국민의힘김예지의원실에 제출한자료에따르면 4대종목군미필선수는 370명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재학중인선수는 165명이다. 이들이상위 5개사이버대학에가져다바치는금액은평균 1,031만원에달한다고한다. 결국, 돈으로군대를미루고있는셈이다.

국민의힘김예지의원은" 프로선수생명은길지않고, 이런특성을제외하고일반인과동일한잣대로판단하는것은고민해봐야할부분" 이라고이야기하며" 병역의무연기목적으로사이버대학에등록하는선수들과이를활용해수익을챙기는학교들의' 상생관계' 대책마련이시급하다" 고발언했는데이것이대관절무슨의미인지파악할수가없다.

첫째로, 프로선수는선수들본인이자유롭게선택한직업이아닌가? 그런데그것때문에다른이들과동등하게취급하지말라니, 도대체이것이무슨차별옹호발언인가?

둘째로, 이미병역연기목적으로선수들은돈을내고, 사이버대학들은 그들에게시간을제공하고있다. 이보다얼마나, 어떻게더'상생'이가능하다는말인가? 이'상생'관계는많은사회구성원들에게상대적박탈감을 키우고있다. 김예지의원은왜이박탈감을장려하는가?

결국'모든한국남성이동등하게부여받은의무'로서의병역은이렇게 환상임이명백해졌다. 돈이있는이들은소위'국위선양'을해서합법적으로병역을피할때까지시간을돈으로살수있다. 국민들에게상대적박탈감을 심화시키는군대는국민들에게외면을받을수밖에없다. 또한시간을살 돈이없어군대에끌려가야만했던사병들에게'나를차별하는국가'를위해목숨을다바치라는주문은이들을노예로취급하는것과다를것이무엇인가. 이런군대따위, 차라리없어지는편이그놈의'국민통합'을위해서 는더낫지않겠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3. [자신의신체는자신의것이다]

지난 7 일, 헌법재판소에서낙태죄가위헌으로판결난지 1 년 6 개월 만에정부에서개정안이라는것을내놓았다. 하지만정부는역시나이번에도 여성의신체에대한그억압의손을놓지않았다. 정부가입법예고한개정안은 14 주내의임신중지만을'허용'할뿐 24 주이후의임신중지여성을형사처벌하는것으로낙태죄의완전폐지가아닌사실상국가께서허용하시겠다는임신중지의허용범위를늘려주겠다는것에불과하다.

임신중지의권리는그저임신주수에따라서좌지우지될수있는것이아니다. 신체적, 사회적조건과주변환경의차이점을무시한채국가가입의적으로만든주수기준을통해차별하려는행위는그자체의부당성과모순성을넘어국가가여전히개인자신의자기결정권을인정하지아니하고여성의신체에대한독점적통제를계속하려함을보여주고있다. 역사적으로 국가는그태초부터여성의신체를그자신의생산수단으로취급하며상위층을위한노동력의재생산성을독점할요량으로여성의신체를통제하고 억압해왔다. 우리세대에와서도문제는현재진행형으로행정부의출산지도나출산'장려'정책과같이여성의신체에대한압제는그형태만을바꾼채 계속되고있다.

이젠그오랜억압을끝낼때다. 여성의신체는온전히여성자신의것으로서임신주수에관계없이자신의신체에대한자기결정권에대해국가는 물론이고그어떤권위도통제할권리는없다. 국가는임신중지에대한권리 침해를중단하고더이상신체의자유를침해하지말라.

<https://www.bbc.com/korean/54446189>

4. [해산하라]

정부가사회적거리두기단계를 1 단계로내리겠다고발표했다. 확진자숫자가줄어들고지역감염숫자또한많이줄었기때문이라고한다. 지난 몇주간집회를금지하고, 인민의의사표현을경찰차벽으로어떻게든막으려들었던문재인정부의성과에'경의'를표한다.

코로나-19 전염병전염이다시금줄어들기시작하면서우리는다시전염이확산되어갔을때의정부의행태에대해비판하지않을수없다. 코로나-19 발발초기에한반도남쪽인민들이자발적으로마스크를사용하고, 딱히어떤처벌을내리는것이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강력한방역조치를 취한경험이있음에도 2 차유행이불거지자정부는강력한억압조치를 취해왔다. 파쇼들의집회에대한'엄중처벌'과같은협박을하거나, 말갈지도않은경로다르인민들의자유로운의사표현에'본보기'를보였다.

다시코로나-19 전염이확산될가능성이없는것은아닌지금, 우리는 정부의지난방역과정에서드러난엄청난국가주의적, 파쇼적행태를강력히비판한다. 정부는인민이전염병의상황에서방역의주체가아니라정부와국가의부속품으로전락시켰고, 그정책의실행과정에서인민이정부와 국가에의존하도록노예화했다. 인민은다른인민과연대하거나상호부조하지못했고, 그저정부가무언가를해주시기를기다리는수동적인존재로변모하도록국가는강제했다.

정부와국가는인민을노예화하며수동적으로만드는방역정책을중단하고, 인민들이스스로사태를극복할수있도록스스로해산하라. 당신들의권력확장욕구는그저파쇼적행태에불과하며, 방역이라는이름의파시즘은그것을정당화하지못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35005?sid=100>